

한국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2차 자료를 활용한 통합적 모형의 제시*

고인곤(강남대학교 글로벌경영학부 부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을 분석하여 벤처기업의 성공개념을 정리하고 통합적 성공요인 모형을 도출하였다. 성공요인으로는 크게 창업자/팀 요인과 기업요인, 환경 요인 및 창업과정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들의 하위 구성요인들을 규명하였고, 기업성과로는 지표의 계량화 여부에 따라 정성/정량적 성과를 측정하거나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 여부에 따라 주관/객관적 성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통합모형을 설계하였다.

한국 벤처기업에 대한 실증분석으로는 성공 요인 중 하나인 벤처기업의 일반적 특성(업종, 규모, 소재지, 발전단계, 업력)을 주변에서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2016년 동안 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음식료/섭유/(비)급속이며, 당기순이익이 가장 큰 업종은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큰 업종은 정보통신/방송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개발, 매출액 당기순이익률이 가장 큰 업종은 에너지/의료/정밀이었다. 종사자규모 측면에서 100인 이상 종사자의 벤처기업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았으나, 일반적으로 종사자수와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매출액 증가율이나 매출액 당기순이익률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50~99인의 벤처기업이 이들 지표가 높았다. 소재지 측면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인천/경기였고, 당기순이익이 가장 큰 지역은 광주/전라/제주와 서울/인천/경기가 거의 비슷하였다. 매출액 증가율과 매출액 당기순이익률이 가장 큰 지역은 광주/전라/제주였다. 기업의 발전단계와 기업성과와의 관계에서는 예상대로 성숙기와 쇠퇴기의 매출액이 가장 많았다. 당기순이익도 성숙기가 가장 많았으며, 매출액 증가율은 창업기, 초기성장기, 고도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순으로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업력 측면에서는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은 업력은 21년 이상이었고, 창업 3년 이하가 가장 높은 매출액 증가율을 보였으며, 4~10년이 가장 높은 매출액 당기순이익률을 보였다. 연구의 논의사항에서 이들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과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통합적 성공요인 모형을 제시하고, 한국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2차 자료의 활용방안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여러 가지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주제어: 벤처기업(venture firm), 성공요인(success factor), 통합모형(integrated model), 2차 자료(secondary data)

I. 서론

벤처기업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제 환경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는 의욕을 가지고 전담조직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는 등 벤처기업 창업의 활성화를 통해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벤처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이 기대되며, 더불어 벤처캐피탈 등 관련 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김경근·쿠즈나젠지, 2014; 중소벤처기업부 2018.1.31.).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벤처성장은 주요 국가들과는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창업에서 기회추구형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54%, 영

국 53%, 중국 43%인데 비해서 한국은 21%에 불과하며, 2016년 기준 GDP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미국 0.37%, 중국 0.28%, 영국 0.18%에 달하고 있으나 한국은 0.13%이다(중소벤처기업부, 2018.1.31.). 그 결과, 한국 경제는 혁신형 기술의 확산과 발전이 지체되어 주요 경쟁국에 비해 최근의 화두인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영성과에 있어서도 한국의 벤처기업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 2016년 기준으로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오히려 감소한 전년 대비 -1.6%로 중소기업이나(8.9%) 벤처기업(7.9%)에 비해서 현저히 낮지만 매출액 순이익률의 증가율은 대기업이 5.6%로 중소기업(2.7%)과 벤처기업(2.8%)보다 높았다(통계청, 2018.3.7.). 한마디로 한국의 벤처기업은 매출은 양호하지만 이익은 불량한 속빈 강정이라고 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강남대학교 2016년도 연구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강남대학교 글로벌경영학부 부교수, top1@kangnam.ac.kr

· 투고일: 2018-03-20 · 수정일: 2018-04-17 · 게재확정일: 2018-04-30

이는 벤처기업의 우량한 성과를 산출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한국 벤처기업 및 관련 산업의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을 분석하여 성공적인 벤처기업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중소벤처기업부나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벤처기업이 우량한 기업성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한국의 벤처기업 및 관련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연구자료의 수집은 가장 큰 애로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주지하듯이 연구자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1차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만 자료수집에 수반되는 비용이나 시간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일이다. 반면에 기존에 수집되어 있는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할 수 있다면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주변의 2차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하여 연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을 규명하고 한국의 벤처산업의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2차 자료의 활용방안을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여러 가지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II. 한국 벤처기업의 성공요인

2.1 벤처기업 성공의 개념

기존연구들은 재무적 성과나 비재무적 성과를 기준으로 성공을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무적 성과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산출되며, 비재무적 성과는 재무제표 이외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응답자의 자기평가(self report)를 통해 측정된다.

Santisteban & Mauricio(2017)는 IT startup들의 성공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기존연구들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기존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요소를 성공 개념에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수용됨으로써 지속적인 수익을 실현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기업을 성공기업으로 보았다.

Chirjevskis & Dvortsova(2012)는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정의했다. 장수덕(2003)은 재무적 성과인 매출성장률과 이익률로 성공기업을 선정하였다.

이처럼 성공에 대한 정의나 측정방법이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어 표준화시키기는 어렵지만 본 연구는 재무적 수치를 기준으로 구성된 2차 자료를 분석할 것이므로 재무적 성과를 기준으로 성공기업을 선정하고자 한다.

2.2 성공요인에 대한 기존연구 동향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Balboni et al., 2014). Gartner(1985)는 다양한 업종의 벤처기업들을 비교분석하여 경영자와 조직, 환경 및 창업과정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Sandberg & Hofer(1987)와 Roure & Keely(1990)는 이들 요소에 전략개념을 추가하여 성공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고, Chrisman et al.(1998)은 62개의 기존 연구를 분석하여 벤처기업 창업과 전략경영이론의 접목을 시도하였다.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경영자의 특성만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기존의 전통적인 주장은 충분하지 않으며, 벤처기업의 성과는 경영자의 특성이외에도 벤처기업 전략이나 산업구조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자의 특성은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는데, Baum et al.(2001)은 건축, 목공산업 벤처기업 대상의 실증연구를 통하여 최고경영자의 기업가특성에 의한 동기부여가 사업의 경쟁전략에 영향을 주는 직접요인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창업자의 기업가특성과 일반적 역량 및 환경은 기업의 성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Koh et al.(2008)은 창업과정에 주목하고 사업계획과 경영성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사업계획은 기업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Santisteban & Mauricio(2017)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1,013개의 논문과 총 74개의 연구를 분석하여 IT startup의 성공요소들을 조직, 개인 및 외부의 세 가지로 범주화하고 총 32개로 정리하였다. 또한 기업의 발전단계를 seed, early, growth, expansion의 4단계로 나누어 seed기에서는 창업팀의 이전 창업경험과 정부지원 요인이, early기에서는 벤처캐피탈 요인이, growth기에서는 클러스터링, 창업팀의 기술/비즈니스 역량 및 벤처캐피탈 요인이, expansion기에서는 클러스터링 요인이 주된 성공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로 관련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찬호, 2012).

첫 번째 유형은 벤처기업 성공요인 또는 경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 이장우·장수덕(2001)은 상장기업이면서 분야별 시장점유율 1~2위인 19개 벤처기업 경영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리더십과 의사결정능력, 도전정신, 창업팀 구성 및 인재확보, 기술 및 마케팅에 대한 지식과 경험 등을 성공요인으로 도출하였다. 서정환·신용백(2002)은 178개 벤처기업을 분석하였는데 주요 성공요인으로 창업자의 기획력과 성실성이 강조되었다. 이외에도 기술개발 측면에서 양산기술과 핵심기술 확보, 벤처경쟁력 측면에서 시장규모와 시장적응력 혹은 확보된 시장, 기술 진입장벽, 인맥형성, 특허권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봉상 외(2003)는 1995년 이후 설립된 110개 벤처기업을 분석하고 창업자의 경영관리 능력과 전문성, 자원 조달능력과 기술 확보 능력을 성공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장수덕·이장우(2003)는 IMF 사태와 같은 환경적 충격 하에서의 벤처기업의 성과변화를 벤처기업의 기업가, 환경, 전략, 조직구조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들은 조직의 구조적 특성이 IMF경제위기를 전후해서 어떻게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4개 유형의 기업군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김종운(2012)는 국내 벤처기업들의 외부협력 활동에 주목하여 협력의 대상 및 협력 내용별로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1,567개 벤처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상천 외(2008)는 6개영역 11개 항목의 요인들이 한국벤처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고인곤·김훈(2007)은 전략요소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고인곤(2009)은 상장기업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에 효과적인 전략유형을 제시하였다. 한편, 창업과정에서 사업계획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로서는 고인곤·이상석(2007)과 고인곤(2011) 등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최고경영자의 영향에 대한 연구로, 박정민 외(2004)는 2002년 기준 중소기업청 지정 80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리더십, 경영능력, 성취의지 등의 최고경영자 특성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윤보현·박준병(2007)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60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서는 학력만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유형은 기술과 사업역량 및 특허출원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이병현 외(2008)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228개 중소제조업체를 분석하여 기술인력 비율, 지식재산권 건수, 기술인력 비중 등의 기술역량과 제품다양성, 고객범위 등의 마케팅역량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윤병섭 외(2010)는 128개 상장기업 분석을 통하여 특허취득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로우테크(low tech)기업보다 하이테크(high tech)기업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밖에도 이대희·진창현(2016)은 한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경영혁신역량과 기업가정신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경영혁신역량의 하위요소로 연구개발, 조직관리, 마케팅, 전략계획, 생산배분, 지식경영능력을,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소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으로 구분하여 생산배분역량을 제외한 모든 요소들이 경영성과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1> 벤처/중소기업의 성공요인에 대한 기존연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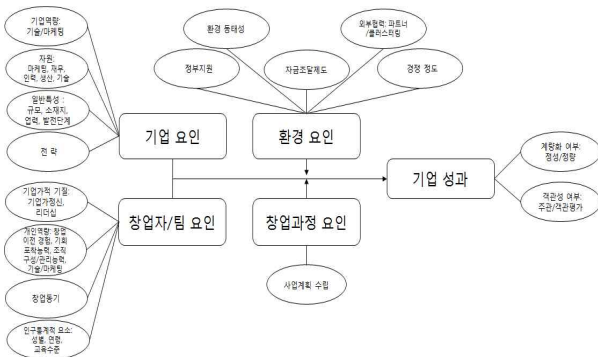
영역	대표적 측정항목	관련 연구
창업자 / 창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가적 기질 -의사결정시 위험감수 -도전정신 -성취욕구 역량 -창업이전 경험/ 학력 -기회포착 능력 -조직구성/관리 능력 -기술/비즈니스 역량 성별/연령/창업 동기 	이장우·장수덕(2001) 서정환·신용백(2002) 고봉상 외(2003) 장수덕(2003) 장수덕·이장우(2003) 한정화(2003) 박정민 외(2004) 윤보현·박준병(2007) 이상천 외(2008) Gartner(1985) Sandberg & Hofer(1987) Roure & Keely(1990) Reynolds & Miller(1992) Chrisman et al.(1998) Baum et al.(2001) Becchetti & Trovato(2002) Oakey(2003) Spyros & Nickolaos(2012) Gartner & Liao(2012) Pugliese et al.(2016) Santisteban & Mauricio(2017)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임직원 역량 -동기부여/커뮤니케이션/의사결정체계 -교육훈련 -연구개발 조직 일반적조직특성 -규모/소재지/업력/성장단계 	이장우·장수덕(2001) 서정환·신용백(2002) 고봉상 외(2003) 장수덕(2003) 장수덕·이장우(2003) 이병현 외(2008) 이상천 외(2008) Gartner(1985) Chrisman et al.(1998) Baum et al.(2001) Song et al.(2008) Gartner & Liao(2012) Hormiga et al.(2010) Santisteban & Mauricio(2017)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 -생산시설 -재무적 자원(자금조달력 등) -마케팅 자원(판매처 포함) -지적재산권/특허권 -인력의 전문성 	이장우·장수덕(2001) 서정환·신용백(2002) 고봉상 외(2003) 장수덕(2003) 한정화(2003) 이병현 외(2008) 이상천 외(2008) 윤병섭 외(2010) Stuart & Abetti(1987) Dimov et al.(2007) Santisteban & Mauricio(2017)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 전략 -추진전략 적절성 -전략의 유연성 -경쟁전략보유여부 -마케팅 지향성 -제품/서비스 혁신 	장수덕(2003) 장수덕·이장우(2003) 한정화(2003) 고인곤·김훈(2007) 고인곤(2009) 이상천 외(2008) 이병현 외(2008) Sandberg & Hofer(1987) Roure & Keely(1990) Chrisman et al.(1998) Almus & Nerlinger(1999) Baum et al.(2001) Santisteban & Mauricio(2017)
창업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과정수행 -기술/시장의 이해 -사업계획 명확화 -체계적 시장조사 	장수덕(2003) 고인곤·이상석(2007) 이상천 외(2008) 고인곤(2011) Gartner(1985) Miner & Raju(2004) Koh et al.(2008) Santisteban & Mauricio(2017)
산업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 환경 -산업내 경쟁상황 -기술변화 정도 -시장변화 정도 -정부정책 일치성 -거시환경변화정도 	서정환·신용백(2002) 장수덕·이장우(2003) 장수덕(2003) 한정화(2003) 이상천 외(2008) Gartner(1985) Sandberg & Hofer(1987) Roure & Keely(1990) Chrisman et al.(1998) Baum et al.(2001) Song et al.(2008) Pugliese et al.(2016) Santisteban & Mauricio(2017)
지원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시스템활용 -기업인증유형 -다양한 자금원천 -경영컨설팅 -대외기관협력활동 	이상천 외(2008) 김종운(2012) Maine et al.(2010) Yoon-Jun(2010) Sefiani & Bown(2013) Bocken(2015) Pugliese et al.(2016) Santisteban & Mauricio(2017)

자료원 : 연구자가 정리

또한 이진민·이상식(2017)은 한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전략, 경영역량, 사업환경,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벤처/중소기업의 성공요인에 대한 국내외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2.3 통합적 성공요인 모형의 설계

전술한 내용을 기반으로 벤처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관계를 <그림1>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성공요인은 크게 창업자/팀 요인과 기업요인, 환경 요인 및 창업과정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들의 하위 구성요인들을 규명하였고, 기업성과는 지표의 계량화여부에 따라 정성/정량적 성과를 측정하거나 응답자의 주관성여부에 따라 주관/객관적 성과를 측정한다.



<그림 1> 통합적 성공요인 모형

III. 한국 벤처산업의 현황

3.1 벤처기업 부문

3.1.1 일반 현황

통계청에 의하면 2016년 말 현재 한국의 사업체수는 395만 3천개, 종사자수 2,133만 2천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0%(7만 8천개), 2.1%(44만 2천명) 증가하여 최근 10년 동안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종사자수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전체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9%로써 절대적이다. 특히 전년대비 사업체수 증가율과 종사자수 증가기여율은 종사자수 「5~99인」 규모의 사업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각각 3.9%(2만 9천개), 46.5%를 기록하여 한국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통계청 ‘2016년 기준 전국 사업체 조사’ 2017.9.28.).

전체중소기업 중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84%로 크지는 않으나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는 이러한 내용을 보여준다.

<표 2> 한국의 전체 기업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수

(단위 : 개,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A)	3,602,476	3,676,876	3,817,266	3,874,167	3,952,537
대기업	3,343	3,448	3,479	3,798	3,945
중소기업(B)	3,599,133	3,673,428	3,813,787	3,870,369	3,948,592
비중(B/A)	99.91	99.91	99.91	99.90	99.90
벤처기업(C)	28,193	29,135	29,910	31,260	33,360
비중(C/B)	0.78	0.79	0.78	0.81	0.84

통계청, ‘2016년 기준 전국 사업체 조사’

동 조사에 의하면, 산업별 사업체수 증감률은 전년대비 농림/어업 10.5%, 예술/스포츠/여가 9.3%, 전기/가스/수도 8.8%, 부동산/임대 8.7%, 보건/사회복지 4.3% 순으로 증가한 반면, 광업만 0.3% 감소하였다. 전체산업 중 사업체수 증가 기여율이 가장 큰 업종은 숙박/음식점으로 24.3%였으며 다음은 부동산/임대(16.2%), 예술/스포츠/여가(12.0%)의 순이었다. <표3>은 이러한 내용을 보여준다.

<표 3> 한국의 산업별 사업체수 현황

(단위 : 개, %)

산업	사업체수			
	2015년(A)	2016년(B)	증감률 (C-B/A)	기여율
합계	3,874,167	3,952,537	2.0	100.0
A. 농림어업	3,288	3,634	10.5	0.4
B. 광업	2,006	2,000	-0.3	0.0
C. 제조업	413,849	416,014	0.5	2.8
D. 전기 가스 수도	1,956	2,129	8.8	0.2
E. 하수 폐기 원료재생	7,932	7,955	0.3	0.0
F. 건설업	133,797	136,246	1.8	3.1
G. 도 소매업	1,015,074	1,020,590	0.5	7.0
H. 운수업	379,431	385,875	1.7	8.2
I. 숙박 음식점	710,699	729,722	2.7	24.3
J. 출판 영상 방송	42,425	42,614	0.4	0.2
K. 금융 보험	42,131	42,734	1.4	0.8
L. 부동산 임대	146,432	159,157	8.7	16.2
M. 전문 과학 기술	102,702	102,844	0.1	0.2
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51,574	51,968	0.8	0.5
O. 공공행정	12,364	12,442	0.6	0.1
P. 교육서비스	175,349	180,646	3.0	6.8
Q. 보건 사회복지	132,553	138,196	4.3	7.2
R. 예술 스포츠 여가	101,063	110,467	9.3	12.0
S. 협회 수리·개인서비스	399,542	407,304	1.9	9.9

통계청, 전계서

3.1.2 벤처기업 현황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2017년 말 현재 한국의 벤처기업수는 전년대비 5.7% 증가하여 35,282개이고 유형은 기술평가 보증이 77.6%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은 제조업, 지역별로는 경기와 서울이 가장 많았다(벤처기업현황’ 2018.1.18.)

<표 4> 한국의 벤처기업 현황('17)

○ 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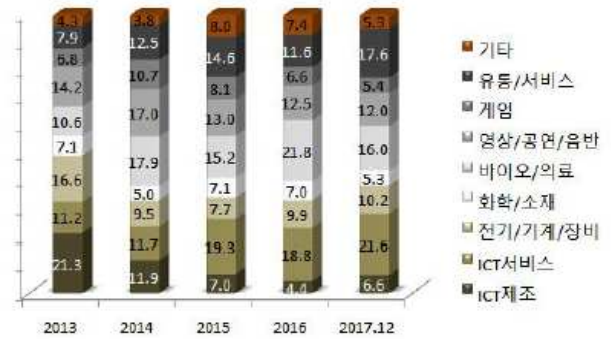
(단위 : 개)

구분	벤처투자	연구개발	기술평가보증	기술평가대출	예비벤처	합계
업체수	1,318	2,110	27,369	4,390	95	35,282
비율(%)	3.7	6.0	77.6	12.4	0.3	100

○ 지역/업종별 현황

(단위 : 개)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 운수	도소매	농·어·임·광업	기타	합계
서울	2,552	3,484	171	150	462	3	1,358	8,180
부산	1,648	260	16	48	29	2	237	2,240
울산	369	62	3	10	1	0	53	498
대구	1,374	191	11	16	25	3	69	1,689
경북	1,502	78	13	16	11	6	79	1,705
광주	635	88	5	9	19	2	76	834
전남	601	38	5	23	5	6	75	753
대전	856	259	45	34	19	2	90	1,305
충남	1,129	51	9	18	9	9	79	1,304
경기	8,641	945	121	157	165	18	606	10,653
인천	1,333	85	5	21	30	1	69	1,544
강원	484	50	17	34	13	9	58	665
충북	866	52	12	16	8	6	54	1,014
전북	612	53	9	19	11	4	48	756
경남	1,683	65	6	13	6	8	90	1,871
제주	98	28	4	4	11	5	31	181
세종	68	15	0	3	1	0	3	90
계	24,451	5,804	452	591	825	84	3,075	35,282



<그림 2> 2017년도 업종별 신규투자 비중(%)

<표 6> 2017년도 업종별 신규투자 금액

(단위 :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ICT 제조	2,955	1,951	1,463	959	1,566
ICT 서비스	1,553	1,913	4,019	4,062	5,159
전기/기계/장비	2,297	1,560	1,620	2,125	2,407
화학/소재	989	827	1,486	1,502	1,270
바이오/의료	1,463	2,928	3,170	4,686	3,788
영상/공연/음반	1,963	2,790	2,706	2,678	2,874
게임	940	1,762	1,683	1,427	1,269
유통/서비스	1,092	2,046	3,043	2,494	4,187
기타	593	616	1,668	1,570	1,283
합계	13,845	16,393	20,858	21,503	23,803

3.2 벤처캐피탈 부문

<표 5>와 같이 2017년 말 현재 한국의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라 한다)는 120개사이고 이들의 주요 투자재원인 투자조합은 2017년도에 164개가 신규 결성되어 총 718개 20조 1,417억 원 규모이다(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8.1.31.).

<표 5> 한국의 창투사 및 투자조합 결성 현황

(단위 : 개,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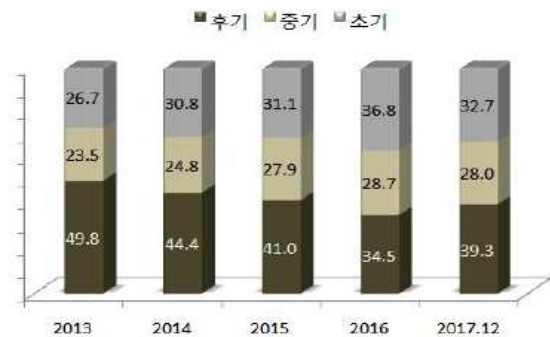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창투사 수	101(3)	103(6)	115(14)	119(13)	120(5)
투자조합 수	402(54)	447(82)	529(108)	605(120)	718(164)
투자조합 금액	103,276 (16,649)	121,142 (26,195)	141,779 (26,346)	168,130 (34,625)	201,417 (44,460)

()는 각각 당해년도 신규등록 창투사 및 신규결성 투자조합 금액임

2017년 신규결성된 투자조합의 조합원 구성비는 정책기관이 31.0%로 가장 높아 최대 출연자이며 금융기관이 25.1%로 그 뒤를 잇고 있다.

2017년도 중 창투사 및 투자조합의 신규투자는 1,266개사에 2조 3,803억원이 투자되어 투자금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ICT 서비스가 21.6%로 가장 많았고 유통/서비스가 17.6%로 그 다음이었다. <그림2> 및 <표6>은 최근 5년간 업종별 신규투자 비중 및 금액을 보여주고 있다.

벤처기업의 업력별 투자비중은 후기가 39.3%로 가장 많고 초기는 32.7%, 중기는 28.0%이다. <그림3> 및 <표7>은 최근 5년간 업력별 신규투자 비중 및 금액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2017년도 업력별 신규투자 비중(%)

<표 7> 2017년도 업력별 신규투자 금액

(단위 :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초기	3,699	5,045	6,472	7,909	7,796
중기	3,259	4,069	5,828	6,156	6,641
후기	6,887	7,279	8,558	7,438	9,366
합계	13,845	16,393	20,858	21,503	23,803

한편, 2018년 1월말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5개년간의 평균 경제성장률 목표를 2.8%로 계획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간 신규 벤처투자 규모를 2.4조원('17년)에서 4.4조원('22년)으로 약 1.8배 확대하고 매출 천억원 규모의 벤처기업을 '17년 550여개에서 '22년까지 800개 이상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벤처산업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18.1.31.).

IV. 성공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4.1 자료수집

4.1.1 자료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17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벤처인의 ‘벤처기업통계’ 자료들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표 8>은 전술한 <표 1>의 요인과 연계한 본 연구의 2차 자료 항목들이며 모두 기술적(descriptive) 성격의 통계자료들이다.

<표 8> 벤처/중소기업 성공요인별 2차 자료 항목

영역	대표적 측정항목	2차자료 항목
창업자/창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가적 기질 -의사결정시 위험감수 -도전정신 -성취욕구 역량 -창업이전 경험/학력 -기회포착 능력 -조직구성/관리 능력 -기술/비즈니스 역량 성별/연령/창업동기 	대표자 및 창업주 특성 : 성별/연령/학력/전문분야/이전근무지 및 업무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임직원 역량 -동기부여/커뮤니케이션/의사결정 체계 -교육·훈련 -연구개발 조직 일반적 조직특성 -규모/소재지/성장단계/업력 	교육·훈련 연구개발 조직현황 업종/규모/소재지/성장단계/업력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 -생산시설 -재무적 자원(자금조달력 등) -마케팅 자원(판매처 포함) -지적재산권/특허권 -인력의 전문성 	브랜드 보유현황 주력제품(서비스) 기술 및 수준 산업재산권현황 경쟁력 비교현황 직종/학력별 인력구성현황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 전략 -추진전략의 적절성 -전략의 유연성 -경쟁전략의 보유여부 -마케팅 지향성 -제품/서비스 혁신 	주력제품(서비스) 구성전략 영업 및 마케팅 활동방법
창업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과정수행 -기술시장의 이해 -사업계획의 명확화 -체계적 시장조사 	
산업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 환경 -산업내 경쟁 상황 -기술변화 정도 -시장변화 정도 -정부 정책의 일치성 -거시환경의 변화정도 	
지원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시스템 활용 -기업인증유형 -다양한 자금원천 -경영컨설팅 -대외기관 협력활동 	벤처기업 유형 정부 정책지원 신규자금 조달현황 협력경험 및 유형 엔젤/VC 투자유치경험 V/C 및 투자조합현황*
기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량적 성과 	매출액, 영업이익, 금융비용, 순이익,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시장점유율

*표시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자료임

특히 ‘2017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는 2016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벤처확인기업의 일반현황과 경영성과 등에 관한 기초통계자료를 조사 분석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업종과 종사자규모, 소재지, 설립후 경과년수(업력)를 기준 변수로 하여 20여 개의 다양한 특성변수와의 관계를 상황표(contingency table)의 형태로 보여준다.
- 2,114개 벤처확인기업의 표본조사 결과를 모수(33,289개, 예비벤처제외) 추정한 결과이므로 분석결과의 지역, 성장단계, 업력은 모집단 분포와 다를 수 있다. 모집단 추정을 위한 가중치는 설계변수업종×종사자규모로 하였다.
- 통계표상의 증감률은 2개년 비교재무제표 방식으로 산출된 것이며 모든 통계자료의 수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였다.

4.1.2 기준변수 측면에서의 한국 벤처기업 현황

전술하였듯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업종과 종사자규모, 소재지, 설립후 경과년수(업력)를 기준변수로 하여 한국의 벤처기업을 구분하였다.

<표 9> 기준변수 측면에서의 한국 벤처기업 현황

구분		업체수(개)	구성비(%)
전체		33,289	100.0
업종	에너지/의료/정밀	2,178	6.5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598	10.8
	통신기기/방송기기	1,239	3.7
	음식료/섬유(비)금속	7,470	22.4
	기계/제조/자동차	8,805	26.5
	소프트웨어 개발	3,552	10.7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200	6.6
기타	4,247	12.8	
종사자규모	1~9인	17,101	51.4
	10~29인	10,805	32.4
	30~49인	2,686	8.1
	50~99인	1,757	5.3
	100인 이상	940	2.8
지역	서울/인천/경기	16,235	48.8
	대전/세종/충청/강원	8,547	25.7
	부산/경남/울산	3,671	11.0
	대구/경북	2,637	7.9
	광주/전라/제주	2,200	6.6
성장단계	창업기	691	2.1
	초기성장기	8,133	24.4
	고도성장기	15,650	47.0
	성숙기	8,626	25.9
쇠퇴기	189	0.6	
업력	창업 3년 이하	2,478	7.4
	4~10년	17,602	52.9
	11~20년	10,863	32.6
	21년 이상	2,346	7.1

2016년 12월말 기준 한국의 벤처기업은 총 33,289개로서 기계/제조/자동차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이 전체의 26.5%인 8,805개로 가장 많았다. 종사자규모로는 1~9인의 기업들이 17,101

개로서 가장 많았으며 구성비는 51.4%였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인천/경기에 위치한 기업들이 16,235개로 가장 많으며 구성비는 48.8%였고, 성장단계로는 고도성장기에 속하는 기업들이 15,650개로 가장 많았고 구성비는 47.0%였으며, 17,602개의 기업들이 설립후 4~10년에 속하여 52.9%의 구성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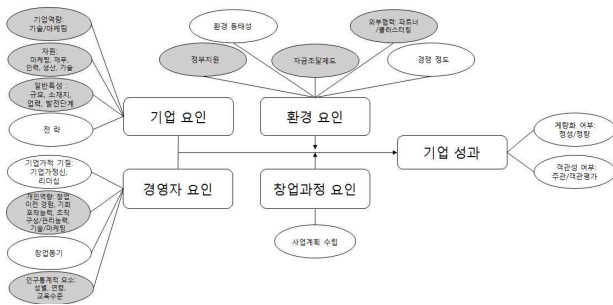
각 발전단계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상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 창업기: 회사를 창업하고, 제품(서비스)을 개발하는 단계
- 초기성장기: 신규제품(서비스)이 출시되어 매출이 발생하는 단계
- 고도성장기: 후속 신규제품이 출하되어 제품 및 시장이 다각화되고 매출이 증폭되는 단계
- 성숙기: 경쟁이 심화되고 매출 및 시장이 포화되어 성장이 둔화된 단계
- 쇠퇴기: 매출이 저하되고 기업 활동이 정체되거나 철수가 고려되는 단계

4.2 성공요인 분석

4.2.1 통합적 성공요인 모형과 2차 자료의 연계

전술한 <그림 1>의 벤처기업의 통합적 성공요인 모형에서 연구자가 <표 8>의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일부라도 분석이 가능한 요소는 아래의 음영처리된 부분이며,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업종, 기업규모, 소재지, 발전단계, 업력 등의 일반적인 조직특성 요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 연구모형과 2차 자료의 연계

4.2.2 벤처기업의 업종

벤처기업의 업종은 <표9>에 나타나 있듯이 기계/제조/자동차업종의 비중이 26.5%로 가장 높고, 음식료/섬유(비)금속 22.4%,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10.8%, 소프트웨어 개발 10.7% 등의 순이다.

2016년 동안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음식료/섬유(비)금속이며, 가장 적은 업종은 소프트웨어개발이었다. 당기순이익이 가장 큰 업종은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이며, 가장 적은 업종은 통신기기/방송기기였다.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큰 업종은 정보통신/방송서비스(11.4%)와 소프트웨어개발(11.3%)이 거의 비슷하며, 매출액 당기순이익률이 가장 큰 업종은 에너지/

의료/정밀이고(3.9%) 가장 작은 업종은 통신기기/방송기기였다 (-0.1%). 구체적인 내용은 <표10>과 같다.

<표 10> 한국 벤처기업의 업종과 기업성과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례수 (개)	매출액	당기 순이익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당기순이익률
전체	33,289	6,854	194	7.9	2.8
에너지/의료/정밀	2,178	5,247	205	4.3	3.9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598	7,587	263	7.8	3.5
통신기기/방송기기	1,239	7,438	-5	0.0	-0.1
음식료/섬유(비)금속	7,470	9,160	224	6.8	2.4
기계/제조/자동차	8,805	7,816	246	10.2	3.1
소프트웨어 개발	3,552	3,120	99	11.3	3.2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200	4,089	92	11.4	2.2
기타	4,247	5,388	163	6.9	3.0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기업 당 실적임

4.2.3 벤처기업의 규모

기업의 규모는 매출액이나 자본금, 종사자수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기본법은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기업, 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400~1,500억원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하지만 본 연구 자료로는 종사자수로만 분석이 가능하다.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벤처기업의 총 종사자 수는 764,365명, 기업 당 평균 종사자 수는 22.9명으로 추산된다. 벤처기업의 종사자규모별 구성비는 <표 9>에 나타나 있듯이 1~9인의 비중이 51.4%로 가장 높고, 10~29인 32.4%, 30~49인 8.1%, 50~99인 5.3%, 100인 이상 2.8%의 순이다.

<표 11> 한국 벤처기업의 종사자규모와 기업성과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례수 (개)	매출액	당기 순이익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당기순이익률
1~9인	17,101	3,216	94	12.2	2.9
10~29인	10,805	6,267	180	4.7	2.9
30~49인	2,686	11,029	237	7.0	2.1
50~99인	1,757	19,740	627	9.5	3.2
100인 이상	940	43,764	1,256	7.2	2.9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기업 당 실적임

2016년 동안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은 종사자규모는 예상한 바대로 100인 이상이고, 가장 적은 종사자규모는 1~9인이었다. 한편, 매출액 증가율이나 매출액 당기순이익률 측면에서는 1~9인이 가장 높은 매출액 증가율을 보였으며 (12.2%), 50~99인이 가장 높은 매출액 당기순이익률을 보였다 (3.2%). 특히 50~99인은 매출액 증가율도 높은 편에 속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1>과 같다.

4.2.4 벤처기업의 소재지

벤처기업의 지역별 분포는 <표 9>에 나타나 있듯이 서울/인천/경기지역이 48.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전/세종/충청/강원 25.7%, 부산/경남/울산 11.0%, 대구/경북 7.9%, 광주/전라/제주 6.6% 순이다.

2016년 동안 매출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인천/경기였고, 가장 적은 지역은 대전/세종/충청/강원이었다. 당기순이익이 가장 큰 지역은 광주/전라/제주와 서울/인천/경기가 거의 비슷하였다. 그러나 대전/세종/충청/강원은 당기순이익도 가장 적었다. 특이하게도 매출액 증가율과 매출액 당기순이익률이 가장 큰 지역은 광주/전라/제주이며(21.2%, 3.2%), 가장 작은 지역은 부산/전남/울산(3.9%, 2.5%)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2>와 같다.

<표 12> 한국 벤처기업의 소재지와 기업성과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례수 (개)	매출액	당기 순이익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당기순 이익률
서울/인천/경기	16,235	7,894	222	6.4	2.8
대전/세종/충청/강원	8,547	4,931	147	7.0	3.0
부산/경남/울산	3,671	6,113	152	3.9	2.5
대구/경북	2,637	7,532	208	15.6	2.8
광주/전라/제주	2,200	7,068	223	21.2	3.2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기업 당 실적임

4.2.5 벤처기업의 발전단계

벤처기업의 발전단계는 라이프 사이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구자에 따라 벤처기업의 발전단계는 적게는 2단계부터 많게는 6단계까지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다. Santisteban & Mauricio(2017)는 기존연구들을 분석하여 seed, early, growth, expansion의 4단계로 정리하였는데 본 연구자료의 창업기는 seed 및 early기에, 초기성장기는 growth기에, 고도성장기와 성숙기는 expansion기에 각각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료에서는 발전단계만 기준변수와 연계된 교차분석의 형태로 제시되었는데, <표 9> 및 <표 13>에 나타나 있듯이 2016년 말 현재 한국의 벤처기업 중 절반 가량(47.0%)이 고도성장기에 속하고 있다. 그 다음은 성숙기(25.9%)와 초기성장기(24.4%), 창업기(2.1%), 쇠퇴기(0.6%)의 순이다.

분석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기타업종을 제외하면, 업종별로는 통신기기/방송기기와 기계/제조/자동차는 고도성장기의 비중이 높으며 그 뒤를 에너지/의료/정밀이 잇고 있다, 창업기와 초기성장기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정보통신/방송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의 순이었다. 성숙기와 쇠퇴기의 비중이 높은 업종은 통신기기/방송기기, 음식료/섬유(비)금속의 순이었다.

중사자규모별로는 1~9인이 고도성장기의 비중이 높으며(49.5%) 그 뒤를 10~29인이 잇고 있다, 창업기와 초기성장기의 비중이 높은 업종도 동일하며, 성숙기와 쇠퇴기의 비중이 높은 규모는 100인 이상, 50~99인, 30~49인의 순으로 나타나

중사자 규모와 발전단계가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 발전단계는 모든 지역에서 고도성장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초기성장기나 성장기의 순으로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광주/전라/제주지역은 초기성장기와 고도성장기의 비중이 75.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업력별로는 창업3년 이하는 대부분 창업기 및 초기성장기에 속하고(83.3%), 4~10년은 초기성장기 및 고도성장기에 속하며(87.0%), 11~20년과 21년 이상은 고도성장기 및 성숙기에 속하고 있어(93.1%, 97.7%) 발전단계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13> 한국 벤처기업의 발전단계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개)	창업 기	초기 성장 기	고도 성장 기	성숙기	쇠퇴기	
전 체	33,289	2.1	24.4	47.0	25.9	0.6	
업 종	에너지/의료/정밀	2,178	4.2	22.1	48.9	23.9	0.9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598	1.6	29.8	42.0	25.1	1.5
	통신기기/방송기기	1,239	1.7	13.1	53.4	29.9	1.9
	음식료/섬유(비)금속	7,470	1.2	20.7	48.3	29.6	0.2
	기계/제조/자동차	8,805	2.0	25.2	51.3	21.3	0.2
	소프트웨어 개발	3,552	1.4	30.7	44.5	22.8	0.6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200	4.9	36.0	35.8	23.3	0.0
	기타	4,247	2.3	18.0	45.3	33.5	0.9
중 사 자 규 모	1~9인	17,101	3.4	32.5	49.5	14.5	0.1
	10~29인	10,805	0.8	18.6	46.7	33.1	0.8
	30~49인	2,686	0.7	12.6	41.1	44.0	1.6
	50~99인	1,757	0.5	9.4	41.2	48.0	0.9
	100인 이상	940	0.0	6.8	32.8	58.6	1.8
지 역	서울/인천/경기	16,235	1.0	22.0	48.7	27.7	0.6
	대전/세종/충청/강원	8,547	2.3	28.4	45.2	23.6	0.5
	부산/경남/울산	3,671	3.6	19.6	49.4	27.0	0.4
	대구/경북	2,637	1.4	22.3	48.1	27.4	0.8
	광주/전라/제주	2,200	7.0	37.3	37.9	17.7	0.1
업 력	창업3년이하	2,478	18.6	64.7	12.9	3.0	0.8
	4~10년	17,602	1.3	33.4	53.6	11.6	0.1
	11~20년	10,863	0.0	5.9	47.1	46.0	1.0
	21년이상	2,346	0.0	0.3	33.4	64.3	2.0

다음으로, 기업의 발전단계와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성숙기를 정점으로 매출액은 감소하는 모양을 보였지만 예상대로 성숙기와 쇠퇴기의 매출액이 가장 많았고 창업기의 매출액이 가장 적었다. 당기순이익도 성숙기가 가장 많았고 창업기가 가장 적었다. 하지만 매출액 증가율은 창업기(30.2%), 초기성장기(25.9%), 고도성장기(8.2%), 성숙기(2.9%), 쇠퇴기(-5.9%)의 순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4>와 같다.

<표 14> 한국 벤처기업의 발전단계와 기업성과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례수 (개)	매출액	당기 순이익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당기순 이익률
창업기	691	810	-126	30.2	-15.5
초기성장기	8,133	3,230	63	25.9	1.9
고도성장기	15,650	7,514	230	8.2	3.1
성숙기	8,626	9,502	281	2.9	3.0
쇠퇴기	189	9,313	137	-5.9	1.5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기업 당 실적임

4.2.6 벤처기업의 업력

벤처기업의 업력은 설립후 경과년수를 의미한다. <표 9>에 나타나 있듯이 한국의 벤처기업은 52.9%가 설립후 4~10년에 속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11~20년(32.6%), 창업3년 이하(7.4%), 21년 이상(7.1%)의 순이다.

2016년 동안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은 업력은 예상한 바대로 21년 이상이고, 가장 적은 업력은 창업 3년 이하였다. 매출액 증가율이나 매출액 당기순이익률 측면에서는 창업 3년 이하가 가장 높은 매출액 증가율을 보였으며(56.5%), 4~10년이 가장 높은 매출액 당기순이익률을 보였다(3.6%). 특히 4~10년은 매출액 증가율도 높은 편에 속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5>와 같다.

<표 15> 한국 벤처기업의 업력과 기업성과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례수 (개)	매출액	당기 순이익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당기이익률
창업 3년 이하	2,478	3,552	3	56.5	0.1
4~10년	17,602	3,465	126	11.6	3.6
11~20년	10,863	9,049	282	5.8	3.1
21년 이상	2,346	25,602	502	3.1	2.0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기업 당 실적임

IV. 연구의 요약 및 논의 사항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벤처기업의 일반적 특성(업종, 규모, 소재지, 발전단계, 업력)을 파악하고 이들 요인과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한국 벤처기업의 업종은 기계/제조/자동차 업종의 비중이 26.5%로 가장 높고, 음식료/섬유(비)금속 22.4%,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10.8%, 소프트웨어 개발 10.7% 등의 순이다. 2016년 동안 기업 당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음식료/섬유(비)금속이며, 가장 적은 업종은 소프트웨어개발이었다. 당기순이익이 가장 큰 업종은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이며, 가장 적은 업종은 통신기기/방송기기였다.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큰 업종은 정보통신/방송서비스와 소프트웨어개발이며, 매출액 당기순이익률이 가장 큰 업종은 에너지/의료/정밀, 가장 작은 업종은 통신기기/방송기기였다. 하지만 세부적인 사업내용의 검토 없이 업종만으로 벤처기업의 성공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경영자는 자신의 기업 가적 기질이나 역량 이외에도 산업환경, 지원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업종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벤처기업의 종사자규모는 1~9인의 비중이 51.4%로 가장 높고, 10~29인 32.4%, 30~49인 8.1%, 50~99인 5.3%, 100인 이상 2.8%의 순이다. 2016년 동안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은 벤처기업의 종사자규모는 100인 이상이고, 가장 적은 종사자규모는 1~9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예상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종사자수와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매출액 증가율이나 매출액 당기순이익률이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50~99인은 매출액 증가율과 매출액 당기순이익률이 높은 편에 속하므로 벤처기업의 적정규모와 연결 지어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벤처기업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인천/경기지역이 48.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전/세종/충청/강원 25.7%, 부산/경남/울산 11.0%, 대구/경북 7.9%, 광주/전라/제주 6.6% 순이다. 2016년 동안 기업 당 매출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인천/경기였고, 가장 적은 지역은 대전/세종/충청/강원이었다. 당기순이익이 가장 큰 지역은 광주/전라/제주와 서울/인천/경기가 거의 비슷하였다. 그러나 대전/세종/충청/강원은 당기순이익도 가장 적었다. 특히하게도 매출액 증가율과 매출액 당기순이익률이 가장 큰 지역은 광주/전라/제주이며, 가장 작은 지역은 부산/전남/울산이었는데, 이는 시장성장률 등을 포함한 마케팅 여건 측면에서 광주/전라/제주지역이 타 지역 대비 우량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국 벤처기업의 발전단계는 절반가량(47.0%)이 고도성장기에 속하고 있다. 그 다음은 성숙기(25.9%)와 초기성장기(24.4%), 창업기(2.1%), 쇠퇴기(0.6%)의 순이다. 기업의 발전단계와 기업성과와의 관계에서는 예상대로 성숙기와 쇠퇴기의 매출액이 가장 많았고 창업기가 가장 적었다. 당기순이익도 성숙기가 가장 많았고 창업기가 가장 적었다. 하지만 매출액 증가율은 창업기, 초기성장기, 고도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순으로, 제품생명주기(PLC)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만일 벤처기업이 창투사로부터 자금조달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술한 창투사의 투자경향을 고려하여 급급적 창업기나 초기성장기 중에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각 성장단계별로 성공요인이 다르다고 주장한 Santisteban & Mauricio(2017)를 한국 상황에 적용해보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벤처기업의 업력은 설립후 경과년수를 의미한다. 한국의 벤처기업은 52.9%가 설립후 4~10년에 속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11~20년(32.6%), 창업3년 이하(7.4%), 21년 이상(7.1%)의 순이다. 2016년 동안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은 업력은 21년 이상이고, 가장 적은 업력은 창업 3년 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큰 의미가 없다. 종사자규모와 같은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업력과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매출액 증가율이나 매출액 당기순이익률 측면에서는 창업 3년 이하가 가장 높은 매출액 증가율을 보였으며, 4~10년이 가장 높은 매출액 당기순이익률을 보였다. 특히 4~10년은 매출액 증가율도 높은 편에 속하므로 벤처기업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점과 연관 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V. 결론

기업의 성과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성과측정은 성공기업의 연구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전통적으로 기업의

성과측정은 수익성에 치중되어 왔으며 거의 예외 없이 재무적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연구개발과 같은 창의적인 업무 분야나 마케팅능력과 같은 무형적인 자산의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못하고 주관적이고 정성적이거나 비공식적인 평가에 머물러 왔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재무적 수치는 성과측정의 최종 근거가 아니라 단지 여러 가지 성과측정 방법의 일부뿐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Eccles 1991). 따라서 다양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연구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그동안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았으나, 2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본 연구는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협회에서 제공하는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국 벤처기업의 일반적 특성만을 분석하였으나 전술한 통합적 성공요인 연구 모형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한다면 시사점이 풍부한 후속연구의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2016년도의 자료만을 분석한 횡단적인(cross sectional) 연구이지만 이전의 자료를 활용하여 종단적인(longitudinal)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대단히 유용할 것이다.

아쉬운 점은 중소기업부가 제공하고 있는 2차 자료인 '2017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는 경영성과로서 재무적인 지표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단순히 현상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 기술적(descriptive)인 분석이며, 업종과 규모, 소재지, 발전단계 및 업력과 같은 조직의 일반특성만을 기반으로 다른 변수들과의 교차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도 동 자료의 한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과 관련해서는 가장 풍부하고도 유용한 자료임은 부인할 수 없다. 정부가 벤처기업 창업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들을 의욕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동조사의 유관기관들은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자료(raw data)를 제공하여 다양한 주제의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REFERENCE

- 고봉상·용세중·이상천(2003). 벤처기업의 성과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벤처경영연구*, 6(2), 3-33.
- 고인곤(2009). 비상장 중소기업은 상장기업을 벤처마케팅해야 하는가? 전략적 성향에 대한 비교연구, *기업경영연구*, 16(4), 183-203.
- 고인곤(2011). 사업계획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구성요소 및 기업가유형, 발전단계 특면에서, *벤처창업연구*, 6(4), 111-135.
- 고인곤·김훈(2007). 우월한 기업성과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전략 선택에 관한 실증적 연구: 다면적 기업성과 및 산업분석, *산업교육연구*, 17, 243-266.
- 고인곤·이상석(2007).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실증적 연구: 신제품개발성과와 기업규모를 중심으로, *상관학연구*, 25(2), 137-148.
- 김경근·쿠즈나젠지(2014). Venture Capital Activities and Financing of High-tech Ventures in Korea, *벤처창업연구*, 9(1), 33-50.
- 김종운(2012). 벤처기업의 외부협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7(1), 215-224.
- 김찬호(2012). *기술사업화 성공과 실패사례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민·나상균·정호일(2004). 벤처기업의 경영특성이 성공요인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17(5), 2069-2089.
- 벤처기업협회(2017) 2017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7.12.29.
- 벤처인(2018). *벤처기업통계*, 2018.1.18.
- 서정환·신용백(2002). 성공/비성공 벤처기업창업자 성공요인 추출과 비교에 관한 연구, *생산성논집*, 16(1), 57-72.
- 윤병섭·이덕록·윤복만(2010). 특허취득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산업교육연구*, 24(4), 261-288.
- 윤보현·박준병(2007). 벤처기업 경영자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2(3), 145-168.
- 이대희·진창현(2016). 한국기업의 경영혁신역량과 기업가정신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연구*, 67, 127-149.
- 이병현·김영근·박상문(2008).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과 기술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술혁신연구*, 16(1), 23-46.
- 이상천·배성문·고봉상(2008). 국내 벤처의 경영성과 영향요인 비교 분석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전자거래학회지*, 13(4), 145-159.
- 이장우·장수덕(2001).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성공한 벤처기업가들의 관점, *중소기업연구*, 23(4), 23-49.
- 이진민·이상석(2017).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2(2), Apr., 123-142.
- 장수덕·이장우(2003). 벤처기업의 기업가, 환경, 전략 그리고 조직구조 특성과 성과변화, *한국경영과학학회지*, 28(2), 35-60.
- 장수덕·이장우(2003). 성공한 벤처기업과 실패한 벤처기업의 특성차이, *벤처경영연구*, 6(2), 101-125.
- 중소벤처기업부(2018).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2018.1.31.
- 통계청(2017). 2016년 기준 전국 사업체 조사, 2017.9.28.
- 통계청(2018). 2016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경영성과 비교 2018.3.7.
- 한국벤처캐피탈협회(2018).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18.1.31.
- Almus, M., & Nerlinger, E. A.(1999). Growth of new technology-based firms: Which factors matter?, *Small Business Economics*, 13(2), 141-54.
- Balboni, B., Bortoluzzi, G., Tivan, M., Tracogna, A. & Venier, F.(2014). The growth drivers of start-up firms and business modelling: A first step toward a desirable convergence. *Management*, 9(2), 131-154.
- Baum J. R., Locke, E. & K. G. Smith(2001). A Multidimensional Model of Venture Growt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2), 292-303.
- Becchetti, L., & Trovato, G.(2002). The determinants of growth for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The role of the availability of external finance, *Small*

- Business Economics*, 19(4), 291-306.
- Bocken, N.(2015). Sustainable venture capital catalyst for sustainable start-up succes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08, 647-658.
- Chang, S. D.(2003). A Comparative Study of Succeeded and Failed Venture Firms, *The Journal of Small Business Innovation*, 6(2), 101-125.
- Chang, S. D., & Lee, J. W.(2003). Entrepreneur, Environment, Strategy, Structure, and Performance Changes of High-Tech Ventures, *Journal of the Korean Operations Research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28(2), 35-60.
- Chirjevskis, A., & Dvortsova, A.(2012). Assessment of qualitative success factors of innovative E-business startups, *Social Science Letters*, 2(2), 51-56.
- Chrisman, J. J., Bauerschmidt, A., & Hofer, C. W.(1998). The Determinants of New Venture Performance: An Extended Model,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Fall, 5-29.
- Dimov, D., Sheperd, D. A., & Sutcliffe, K. M.(2007). Requisite expertise, firm reputation and status in venture capital investment allocation decis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2, 481-502.
- Eccles, G. R.(1991). The performance measurement manifesto, *Harvard Business Review*, Jan.-Feb., 86-106.
- Gartner, W. B.(1985). A Conceptual Framework for Describing the Phenomenon of New Venture Cre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4), 696-706.
- Gartner, W., & Liao, J.(2012). The effects of perceptions of risk, environmental uncertainty and growth aspirations on new venture creation success, *Small Business Economics*, 39, 703-712.
- Hormiga, E., Batista-Canino, R., & Sanchez-Medina, A. (2010). The role of intellectual capital in the success of new ventures, *International Entrepreneurial Management Journal*, 1-22.
- Kim, C. H.(2012). Case Studies on the Successes and Failures of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Doctoral Dissertation, Hannam University, Korea.
- Kim, J. W.(2012). The Effects of Korean Ventures' External Collaborations on their Performa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1), 215-224.
- Kim, K. K., & Kutsuna, K.(2014). Venture Capital Activities and Financing of High-tech Ventures in Korea,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1), 33-50.
- Ko, B. S., Yong, S. J., & Lee, S. C.(2003).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New Venture Performance, *The Journal of Small Business Innovation*, 6(2), 3-33.
- Koh, I. K.(2009). Should Unlisted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y Benchmark Listed One? Comparative Study on the Strategic Tendencies,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16(4), 183-203.
- Koh, I. K.(2011). A Study on The Effects of Business Plan upon Firm Performa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6(4), 111-135.
- Koh, I. K., & Kim, H.(2007). An Empirical Study on The Choice of Strategy as Premise for Superior Outcomes; Multi-Aspects Analysis of Firm's Performance and Industry, *The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17, 243-266.
- Koh, I. K., & Lee, S. S.(2007). An Empirical Study on Business Planning of Korean SMEs: Focusing on New Product Development Performance and Firm Size, *Journal of Commodity Science and Technology*, 25(2), 137-148.
- Koh, I. K, Kim, D. H., & Lee, S. S.(200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plan components and corporate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Management*, 8(4), 359-380.
- Korea Venture Business Association(2017) 2017 Survey of Korea Venture Firms, 2017.12.29.
- Korean Venture Capital Association(2018).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18.1.31.
- Lee, B. H., Kim, Y. K., & Park, S, M.(2008). Business Scope, Technological Capability and Performance,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16(1), 23-46.
- Lee, D. H., & Jin, C. H.(2016). The Effect of Innovation Managerial Capabilities and Entrepreneurship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in Korea,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67, 127-149.
- Lee, J. W., & Chang, S. D.(2001). Success Factors of High-Tech Ventures: Successful Entrepreneurs' View, *The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23(4), 23-49.
- Lee, J. M., & Lee, S. S.(2017). A Study on the Antecedent Factors of Performance and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2(2), Apr., 123-142.
- Lee, S. C., Bae, S. M., & Ko, B. S.(2008). An Empirical Study on Comparative Analysis of Determinants of Management Performance for Domestic Ventures,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13(4), 145-159.
- Maine, E., Shapiro, D., & Vining, A.(2010). The role of clustering in the growth of new technology-based firms, *Small Business Economics*, 34, 127-146.
- Miner, J. B., & Raju, N. S.(2004). Rick propensity differences between managers and entrepreneurs and between low- and high-growth entrepreneurs: A reply in a more conservative vei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9(1), 3-13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2018). The Policies of Private-centered venture ecosystem innovation, 2018.1.31.
- Oakey, R.(2003). Technical entrepreneurship in high technology small firms: Some observations on the implications for management, *Technovation*, 23, 679-688.

- Park, J. M., Na, S. G., & Chung, H. I.(2004). A Study on Effects of the Venture Business Characters on the Success and Performance, *Industry Economy Research*, 17(5), 2069-2089.
- Pugliese, R., Bortoluzzi, G., & Zupic, I.(2016). Putting process on track: Empirical research on start-ups' growth drivers, *Management Decision*, 54(7), 1633-1648.
- Reynolds, P., and Miller, B.(1992). New firm gestation: Conception, birth, and implications for researc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7, 405-417.
- Roure. J. B., & Keeley. Robert H.(1990). Predictor of Success in New Technology Based Vent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 201-220.
- Sandberg, Wiilliam R., & Charles W. Hofer(1987). Improving New Venture Performance: The Role of Strategy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Entrepreneu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2, 5-28.
- Santisteban, J., & Mauricio, D.(2017).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CRITICAL SUCCESS FACTORS OF INFORMATION TECHNOLOGY STARTUPS, *Academy of Entrepreneurship Journal*, 23(2), 1-23.
- Sefiani, Y., & Bown, R.(2013). What influences the success of manufacturing SMEs? A perspective from tangier,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Social Science*, 4(7), 297-309.
- Song, M., Podoynitsyna, K., Van der Bij, H., & Halman, J.(2008). Success factors in new ventures: A meta-analysis, *The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25, 7-27.
- Spyros, J. V., & Nickolaos, G. T.(2012). Factors influencing entrepreneurial process and firm startups: Evidence from central Greece, *Journal Knowledge Economics*, 3, 250-264.
- Statistics Korea(2017). 2016 National Business Survey, 2017.9.28.
- Statistics Korea(2018). 2016 Comparison of Management Performance among Large corporations, SMEs, and Venture companies, 2018.3.7.
- Stuart, R., & Abetti, P. A.(1987). Start-up ventures: towards the prediction of initial suc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 215-230.
- Suh, J. H., & Shin, Y. B.(2002). Derivation and Comparison of Establisher's Success Factors between Successful and Failed Venture Companies, *Productivity Review*, 16(1), 57-72.
- Venture in(2018). *Venture Business Statistics*, 2018.1.18.
- Yoon, B. H., & Park, J. B.(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 and CEO's Characteristic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2(3), 145-168.
- Yoon, B. S., Lee, D. R., & Yun, B. M.(2010). The Effect of the Patent Acquisition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The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24(4), 261-288.
- Yoon, J. L.(2010). Technology strategy by growth stage of technology-based venture companies, *International Review of Business Research Papers*, 6(6), 216-234.

An Empirical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of Korean Venture Firms: The Suggestion of the Integrated Model Utilizing Secondary Data*

Koh InKon**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ganizational general characteristics (industry, size, location, development stage, and company age) and success factors of Korean venture firms using secondary data.

Among the industries with the highest sales figures in 2016 are food / fiber / (non) metals, and the smallest category was software development. The sectors with the highest net profit were computer / semiconductor / electronic components, and the smallest category was telecommunication equipment / broadcasting equipment. The industries with the largest sales growth rate are IT / broadcasting services and software development. The industries with the highest net profit margin of sales are energy / medical / precision, and the smallest is telecommunication equipment / broadcasting equipment.

In terms of the number of employees, venture firms with more than 100 employees have the largest sales and net profit, with employees between 1 and 9 have the smallest. However, these results are predictable. In general, the number of employees is highly correlated with sales and net profit. Rather, the sales growth rate and the net profit margin of sales may be meaningful. In particular, with employees between 50 ~ 99, the growth rate of sales and the net profit margin of sales were high.

In terms of location, Seoul / Incheon / Gyeonggi were the regions with the highest sales and Daejeon / Sejong / Chungcheong / Gangwon were the least regions. Gwangju / Jeolla / Jeju and Seoul / Incheon / Gyeonggi were almost similar in the areas with the largest net profit. However, Daejeon / Sejong / Chungcheong / Gangwon had the lowest net profit. Unusually, the areas with the highest sales growth rate and the highest net profit margin of sales were Gwangju / Jeolla / Jeju, and the smallest areas were Busan / Jeonnam / Ulsa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ge of development and the performance of the company, the sales of maturity and decline stages were the highest and establishing stage was the lowest. Net profit was also the highest in mature stage and the smallest in establishing stage. The sales growth rate shows a typical pattern in the order of establishing stage, early growth stage, high growth stage, maturity stage, and decline stage. In terms of business performance, sales and net profit are the highest with 21 years or more of company age, and the smallest is less than 3 years. In addition, the sales growth rate was the highest in three years or less, and the net profit margin of sales was the highest in 4 to 10 years.

This study can present lots of useful implications by suggesting integrated research model and examining the success factors of Korean venture firms and presenting the application methods of secondary data in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venture industry in Korea.

Key Words: venture firm, success factor, integrated model, secondary data

* This study is supported by 2016 Kangnam University Research Grants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Global Business, Kangnam University, top1@kangnam.ac.kr